

유연성의 정치: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전략*

이 순 주
울산대학교

이순주 (2012), 유연성의 정치: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전략.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성투표권 획득에서부터 볼리바르 헌법 수립까지 어떠한 전략과 연대를 모색해 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베네수엘라 젠더정치는 쿠바, 중국, 니카라과와 같이 혁명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혁명 이후 여성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한 국가재건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고자 국가가 여성단체를 만든 것과는 다른 맥락에 있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등장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그리고 '21세기형 사회주의 건설'을 기치로 내건 급진적인 사회경제정책들로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이 헌법에서 비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것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 등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헌법의 수립은 차베스 정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오랜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성과는 비교적 오랜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경험적으로 학습된 합리성에 기초한 유연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핵심어 페미니스트, 젠더정치, 연대, 볼리바르 헌법, 시민사회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기술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B00332).

I. 시작하며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avez Frías)의 등장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차베스는 국내에서는 ‘볼리바르 혁명’을 통해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정치개혁을, 대외관계에서는 ‘남미를 위한 볼리바르 대안’으로 새롭게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 시도들은 성공여부를 떠나 매우 새로운 접근이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간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인들은 베네수엘라의 개혁시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자 노력해 왔다.¹⁾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선거혁명을 통한 개혁정부’와는 여러모로 구별될 수 있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연속적인 선거 및 투표를 통해 권력 및 제도교체를 신속하게 해 오고 있고, 자본에 대한 일방적 수탈과 강제적 몰수 없이 사회·경제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꾸준히 진행해 나갔기 때문이다(김병권 외 2007). 이와 함께 변화는 볼리바르 혁명을 통한 헌법 개정과 다양한 대안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이끄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사회경제적 구조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볼리바르 혁명’은 여성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우선 ‘볼리바르 헌법’은 헌법의 모든 조항에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대헌장(Carta Magna)’이라고 지칭될 만큼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획기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조치들이

1)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서 발행하는 ‘해방’에서는 총 5회에 걸쳐 볼리바르 혁명을 연재하여 다루었다(임승수 2006a; 2006b; 2006c; 2006d; 2006e). 사회진보연대에서는 2006년 3월 16일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요약하여 ‘사회운동’이라는 기관지에서 특집기사로 싣기도 했다(류주형, 2006). 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단행본(김병권 외 2007)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루어졌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젠더정치는 쿠바, 중국, 니카라과와 같이 혁명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혁명이후 여성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한 국가재건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고자 국가주도로 여성단체를 만든 것과는 다른 맥락에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쿠바여성연맹(Federación de las Mujeres Cubanas), 중국전국여성동맹(All-China Women's Federation), 그리고 루이사 아만다 에스피노사 니카라과여성협회(Asociación de Mujeres Nicaraguenses Luisa Amanda Espinoza) 등에 일반 여성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였다. 이들 조직은 정부에 양성평등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요구는 '보다 큰' 정치적 목적과 국가통합 혹은 발전의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Fernandes 2007, 100).

국내에서는 차베스의 등장으로 최근 수년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차베스 정권의 성향과 개혁 내용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차베스 정부에 대한 관심은 학계보다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차베스의 개혁을 비교적 심층적으로 다룬 단행본들도 출간되었다.²⁾ 특히 '볼리바르 헌법'에서 나타난 특징들 중 언어특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성차별 극복노력과 주부의 가사노동을 공식화 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통상적인 헌법 틀을 깬으로서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고, 자연스럽게 차베스정부의 여성정책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베네수엘라 혁명, 여성에게도 혁명인가?'(전소희·정주연 2006)라는 주제의 연구를 산출했다. 이 논문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 제4공화국과 차베스 정권과의 차별성, 체제이행의 동학, 그리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주체들의 상호영향과 동학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조돈

2) 베네수엘라 혁명연구모임 2006; 김병권 외 2007; 안태환 2008.

문 2009, 2011).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지역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이러한 도시사회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초점을 둔 연구는 상당히 적다(Fernandes 2007, 98). 또 베네수엘라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성중심의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Ramos Rollón 1995; Ellner 2006). 예를 들면,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사회운동에 관한 로페스-마야(Lopez-Maya 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운동의 행위자들로서 퇴직노동자, 대학생, 노점상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사회운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문화적 활동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데, 여성 운동은 분석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들의 정치참여 현황, 참여의 효과와 한계,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현재 다양한 정치행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정책결정과정에는 낮은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직화된 여성들도 양성평등 보다는 공동체가 직면한 이슈들, 주변화된 지역의 기초 서비스, 그리고 생필품의 가격인하 등 모든 문제들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사이라(Zaira 2002)는 베네수엘라에서 여전히 명목상의 참여(tokenism)과 유리천정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페르난데스(Fernandes 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주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조건에서 바리오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혁명-포퓰리스트 국가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동원화 된 빈민여성들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볼리바르 혁명과 그에 따른 변화들은 포퓰리스트 성향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우고 차베스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바리오(barrio, 도시빈민가)지역 여성운동과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이 차베스를 지지하는 데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지양

하고자 한다. 여성운동은 역사적으로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여성의 실제적 요구와 더 나아가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베네수엘라에서 여성운동이 투표권 획득에서 ‘볼리바르 헌법’이 수립되기까지 실제적·전략적 요구³⁾를 획득해내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모색해 왔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베네수엘라 여성운동 연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다. 여기서는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이 경험적으로 습득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유연한 연대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는 베네수엘라 의회의 가족, 여성, 청소년 위원회(Comisión Permanente de Familia, Mujer y Juventud) 소속 위원들과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여성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de la Mujer, UCV)의 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II. 베네수엘라 정치사에서의 여성운동

1. 연대의 시작-투표권 획득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당시는 까우디요와 군대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전쟁이 반복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피폐해 있던 시기였고,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이었다. 간혹 익명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다. 1870년 안토니오 구스만 블랑코(Antonio Guzmán Blanco)대통령이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여성도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점차 여성들은 사회활동과 임금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3) 여성운동의 이해(interests)와 요구는 실제적인 것과 전략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 이해와 요구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이나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들로서 생존과 관련된다. 전략적인 이해와 요구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부장제를 비롯한 여성차별과 종속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다(Molyneux 1985; 모저 2000).

여성들의 정치활동과 연대는 고메스 독재기(1908-1935)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고메스 독재에 반대하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들은 반정부투쟁에 가담했다.⁴⁾ 1928년에는 여성애국자회(Asociación Patriótica de la Mujer)를 결성하여 정치적 억압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활동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진보적 정치단체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두 개의 페미니스트 단체가 만들어졌다. 여성문화연합(ACF, Agrupación Cultural Femenina, 1935년)과 베네수엘라여성협회(AVM, Asociación Venezolana de Mujeres, 1936년)가 창설되었다. 이 두 단체는 처음으로 '베네수엘라 여성권리에 관한 의제(Agenda de Derechos de la Mujer Venezolanas)'를 만들었다. 이 단체들은 정치적 약속과 현실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회적 출신이 서로 달랐지만, 상호협조와 존중관계를 유지했다(Vera 2000, 25). ACF는 스스로를 정치적 단체로 규정하고, 여성운동의 전략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과 정치적 권리의 획득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반면, AVM은 아동과 여성보건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실제적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Castañeda 2010, 174-175). ACF와 AVM의 목표는 서로 달랐지만, 이러한 차이가 민법개정을 위한 단일협회 구성과정에서 장애요소가 되지 않았다.

고메스 사망 후, 여성단체들은 의회홍보와 가두집회 등을 통해 획득한 지지와 진보적 남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랜 논쟁을 거쳐 민법개헌을 위한 의회개최를 요구했다. 페미니스트 대중, 위원회활동의 증가, 새로운 그룹의 형성과 활동을 통해 리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다 광범위하고 단합된 활동을 위해 대규모 여성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1940년 6월 11일-13일에 카라카스에서 제1차 베네수엘라여성대회 준비를 위한 첫 회의가 7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다양한 투쟁의제가 제시되었다. 의제의 중심은 민법을 비롯하여 여성을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법령들의 폐지,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Castañeda 2010,

4) 대표적인 여성으로 호세피나 홀리악(Josefina Juliac)을 예로 들 수 있다(Castillo 2005).

177). 이 회의에서 여성들은 민법개혁과 여성투표권 획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된 힘과 조직력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의 투표권 획득을 위해 주효했던 전략은 페미니스트 행동(Acción Femenina)과 여성투표권을 위한 협의회(Comité Coordinador Pro Sufragio Femenino)와 같은 통합 조직 창설과 연대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각을 일으키고, 여성들과 진보적 부문들을 응집시켰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의회 내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성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지식인들과 정치지도자들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하는 등⁵⁾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의회에서 여성들의 투표권이 논의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단체들 간의 논의를 수집하고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도 구성하여 국회의원들이 이를 청취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여성연대활동의 결과, 1946년에 구성된 제헌의회(Asamblea Nacional Constituyente)의 의원 160명 중에서 여성은 정의원(principales) 13명, 보궐의원(suplentes) 8인이 선출되었다.⁶⁾ 그 결과 1947년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보통, 자유, 비밀선거를 통한 투표권을 허용했으며, 모든 선출직에 대한 피선출권도 갖게 되었다. 1944년에 지방위원회 선출에서는 여성의 투표가 허용되었었지만, 1945년의 체제변동으로 인해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28세대라고 불리는 정치세력출신인 로물로 베탕쿠르(Rómulo Betancourt, 1945-1948, 1959-1964)가 소집한 제헌의회를 통해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같은 투표권이 부여되었다.⁷⁾

5) 1944년에서 1946년까지 학교의 여교사들에게 <Correo Cívico Femenino>라는 잡지를 무료로 배포하였고, 이를 다시 학부모들과 나눠보기도 했다(Castañeda 2010, 177).

6) 그러나 1947년 실시된 선거에서 여성은 상원 2명, 하원 2명에 불과했다.

7)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각 국가마다 시기를 달리한다. 8개 국가는 독재시기에, 베네수엘라와 코스타리카는 민주화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스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포퓰리스트 전략이 실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Castañeda 2010, 181에서 재인용). 대개 포퓰리스트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와 유사한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던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는 민감했지만, 시민권과 정치권 획득을 위한 노력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지지를 받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사회적 권리가 여성의 시민권과 정치권보다 우선적이었기 때문이었다(Castañeda 2010, 182). 베네수엘라에서는 민주행동당(Acción Demócrata)의 일부 적극적인 여성당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다른 당원들⁸⁾의 협력이 여성투표권 획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2. 유연한 연대의 확대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 베네수엘라정부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1960년대 동안 수립된 두 차례의 국가발전계획에서 여성은 노동력 확충을 위한 대상으로서, 그리고 가족계획과 관련해서만 언급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Fridman 2000, 132-134). 프리드만(2000)은 베네수엘라의 군사독재기보다 민주주의에서 여성들이 정치참여기회를 더 갖지 못한 것은 정치변동에서의 정치적 기회가 젠더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독재시기의 성 편향적인 담론과 체제전복을 위한 정당의 비밀활동 등을 통해 반독재 투쟁에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는 증가한다. 여성들은 이러한 참여를 통해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학습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여성과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1967년 유엔의 제 22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 이

정부는 친 여성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었다. 남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었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아주 드물게 실시되었다.

8) 여성투표권부여에 적극적이었던 대표적인 당원은 Andrés Eloy Blanco와 Apure 지역 창당자인 Juan Salerno를 들 수 있다.

채택된 것을 계기로 다음해인 1968년, ‘여성이여 나타나라(MUJER, HAZTE PRESENT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1차 베네수엘라 여성 지위 평가세미나(Seminario de evaluación de la condición de la Mujer)’를 카라카스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모든 정당, 노동단체, 동업조합, 전국에서 새로 참가한 여성들 등 다양한 직업과 그룹의 여성들이 공적 영역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Vera 2010, 237).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여성운동가인 베라(Vera, 2010)는 이 세미나를 다양한 입장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법, 제도, 편견, 전통 등을 가진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동목표를 규정하는 성과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러한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가치들은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었다.⁹⁾

1999년 ‘볼리바르 헌법’이 수립되기 전, 베네수엘라에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헌법은 1958년 폰토피호(Punto Fijo)협정을 통해 만들어진 1961년 헌법이었다.¹⁰⁾ 이후 수립된 폰토피호체제는 민주행동당(AD, Acción Democrática)과 독립정치조직위원회(COPEI, Comité de Organización Política Electoral Independiente)이 중심이 된 강력한 양당지배체제를 수립시켰으며 이후 40여 년간의 외형상 민주주의를 유지시켰다.¹¹⁾

1961년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1958년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그다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1년 수립된 새 헌법에는 성별간의 평등이 명시되었지만, 다른 법조항들에서 이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법적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면, 헌법에서의 평등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민법에

9) 이 세미나의 조직을 위해 200여명의 단체대표들과 개인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총 8개의 분야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베네수엘라 여성의 현실과 세계여성의 현실에 대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Vera 2010)를 참고.

10) 베네수엘라는 1811년 독립 후 현재까지 총 27번의 헌법 개정을 했다.

11) 이 시기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순주 2008, 177-179)를 참고.

서 결혼한 여성과 동거중인 여성들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기혼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 계약에 대한 서명, 자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었다. 노동법, 형법에서도 이중 잣대를 통해 차별받았다.

‘UN세계여성의 10년(1975-1985)’은 전 세계에서 여성이슈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베네수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러한 이슈의 확산이 가시적으로 증가되었다. ‘세계 여성의 10년’ 제정을 전후로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페미니스트 담론이 공개적 관심을 받던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여성변호사연맹(FEVA-Federación Venezolana de Abogadas)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법 개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대선시기에 맞추어 여성권리향상을 위한 민법개정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FEVA는 대통령후보들과 공개포럼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에 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COPEI의 루이스 에레라 캄핀스(Luis Herrera Campins, 1979-1984)를 지지했다(Rakowski 2003, 391). 에레라 캄핀스는 197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79년에는 베네수엘라 사상 최초의 여성전담국가기구인 여성개발부(Ministerio para el Desarrollo de la Mujer)가 설립되었다.

여성들의 연대는 1979년부터 1982년 사이 민법개혁을 위한 법안 제안과 2만 명의 서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주부, 사무직, 노동조합, 여성단체, 학생, 교수, 여성 사업가, 전문직여성, 정당 당원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다양한 계급과 그룹에 소속된 여성들의 협력은 이미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던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의 주요 전략이었다.

이러한 연대는 정치권과 종교권으로 확대되었다. 다양한 계층과 그룹에 소속되어 다른 이익을 가진 여성들은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피하고, 공유되는 목표들을 우선시하여 활동했다. 이후부터 정치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는 정치적 여성들, 공직에 있는 페모크라트, NGO와 학계 등 시민

사회의 여성들-변호사, 언론계, 의사, 예술가, 장인, 노동계, 독자적인 페미니스트, 대중페미니스트 그룹-이 포함된 일종의 3자간 협력이 나타났다(Espina and Rakowski 2006, 311).

이와 함께 매우 특징적인 부분의 하나는 제도권에 들어간 여성과 시민사회 내 여성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역할분담이다. 여성부 최초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메르세데스 풀리도 데 브리세뇨(Mercedes Pulido de Briceño)는 소속정당과 관련 없이 시민들이 제시한 민법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고, FEVA의 회원들은 토론회와 인터뷰, 각종 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산시켰다. 또, 이들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여성리더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에 가입시키는 노력도 병행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정부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보수그룹과 반 페미니스트들과도 연대하도록 유도했다. 또, 여성 저널리스트 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인쇄매체들을 통해 정보를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의 여성지위를 비교하고,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여성권리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연대가 보다 광범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는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 참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시 여성부의 페도크라트들은 베네수엘라의 공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시민사회여성들은 FEVA, 여성언론인단체, 학계여성들, 페미니스트 단체 등 이 포함되어 첫 대규모 NGO 여성네트워크인 여성NGO연합(CONG, Coordinadora de ONG de Mujeres)을 결성했다. CONG은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전문직, 노동자계급, 그리고 저임금 노동여성들까지 포함하는 총 25개의 조직을 거느린 하나의 우산조직으로 성장했다(Espina and Rakowski 2002). CONG에서는 여당이나 정부소속이 아닌 여성들만 회원이 될 수 있었지만, 회원들은 정치인들

이나 페모크라트들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동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일부 회원들은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은 정부부처에 로비를 했고, 이후 회원들은 그러한 정부부처의 자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Rakowski 2003, 393).

3. 여성운동연대의 성과와 위기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은 그 시작이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층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데올로기나 계층을 넘어서 다양한 그룹의 여성들을 응집시키고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우 유연한 연대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 개정과 함께 제도적인 성과들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과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가시화 되었다.

1984년 하이메 루신치(Jaime Lucinchi, 1984-1989) 정부에서 여성개발부를 폐지하고 청년부(Ministerio de la Juventud)내에 가족과 여성국가사무국(Oficina Nacional de la Mujer y la Familia)을 설치했다가 다시 2년 후인 1986년에는 가족부(Ministerio de la Familia), 여성사무국(Oficina Nacional de la Mujer)과 여성진흥청(Dirección General Sectorial de Promoción de la Mujer)으로 변경했다. 여성진흥청에서는 정치참여, 리더십, 자존감 향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조직의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지방에서도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총 23개소의 주(州)여성사무소(Oficinas Estatales de la Mujer)가 설치되었다. 이 기관에서는 여성들에게 무료법률자문, 보건,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¹²⁾

1987년 가족부(El Ministerio de la Familia), 1989년 대통령직속 여성자문위원회(COFEAPRE, Comisión Femenina Asesora d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와 여성진흥부(Ministerio de Estado para la promoción de la

12) <http://www.eurosur.org/FLACSO/mujeres/venezuela/orga-4.htm>

Mujer), 여성권리를 위한 양원위원회(la Comisión Bicameral para los Derechos de la Mujer del Congreso)가 설치되었다. 1993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내에 국가여성위원회(CONAMU, Consejo Nacional de la Mujer)가 설립되었고, 이는 1999년 국립여성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으로 변경되었다(Barreto).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중앙대학 여성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de la Mujer de la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를 비롯하여 국립 및 사립대학교, NGO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1993년 여성을 위한 기회평등법(Ley de Igualdad de Oportunidades para la Mujer)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제1차 여성에 대한 국가계획(1998-2003)과 제 2차 여성에 대한 국가계획(2004-2009)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성NGO의 우산조직인 CONG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과 연대하거나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의 노력은 1990년 노동법개혁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노동자의 차별을 법적으로 철폐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법안도 추가했으며 모성을 사회적 기능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법안을 작성하는 수년간의 작업에 노동조합, 대중여성서클(Círculos Femeninos Populares), FEVA, 양원위원회, 학계 등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여성들의 모든 요구가 반영되지는 못했고, 당시에는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직, 노동조합, 대중여성서클의 분열을 낳았다. 상당수 여성단체가 이 시기에 CONG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수년간 회합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분쟁과 마찰은 경제위기¹³⁾로 인해 더 심화되었다. 엘리트층을 제외한 대다수 여성들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자연스럽게 여성권리를 위한 투쟁은 정치권과 국가기관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 일부 페미니스트 리더들

13) 1986년부터 1998년까지 국민들의 소득은 52%이상 감소했고, 국민의 85%이상이 빈곤층이었다. 실업률은 18%-20%에 달했는데, 여성 실업률은 43.5%에 이르렀다. 노동력의 절반이상이 비공식경제에 유입되었으며 최저임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아 기초생활을 절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Urdaneta 2008).

은 학계와 자문에서 그들의 가족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저소득층과 노동조합 여성들은 일, 소득, 보조금, 낮은 가격을 위해 계급투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남성들의 활동에 가담했다. 일부 여성 단체와 근린공동체는 국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몰두했다. 전문직과 저소득층의 노동시간과 처우 등의 격차로 인한 갈등도 가시화되었다(Rakowski 2003, 394). 흩어진 NGO들은 한정된 재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NGO의 활동 아젠다는 기금공여자가 제시하는 대로 수립되었다.

1990년대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은 모든 계층과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대는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FEVA, 대중여성서클, ADEVERSA(대안적 성교육 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CONAMU의 자문단이 되면서 기존의 NGO 네트워크는 CONAMU를 중심으로 제편되었다. 이는 과거 여성NGO 네트워크가 정부에 반대하는 편에서 동원화되었던 것에서 정부와의 직접적 제휴관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기존 NGO그룹들과의 소원한 관계와 정부와의 제휴관계 속에서 제1차 여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과정이 진행되었다. CONAMU와 여성정치인들이 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회의에 적극적으로 CONG에 소속된 단체들의 지도자들을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함으로써 다시 이들을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III. 차베스 정부와 여성운동

1. 볼리바스 헌법과 여성운동

우고 차베스는 쿠데타 실패 후 제5공화국운동(MVR, Movimiento V República)¹⁴⁾이라는 정당을 창설했다. 이 정당은 1997년 10월 창당하여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핵심정

14) MVR은 1982년 12월 결성된 비밀결사체인 볼리바르해방군200(Ejército Bolivariano Revolucionario 200, MBR-200)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건국 공신인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장군의 독립정신과 통합운동을 계승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홍육현 2007, 46 재인용).

당으로 부상했다. 차베스 정부는 최근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정권 중에서 가장 포퓰리스트적인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Paramio 2006, 62). 차베스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1)198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된 극심한 빈곤의 심화, 2)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3)심각한 정치부패에 따른 전통적 정당에 대한 불신, 4)불리해진 시장으로부터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배제, 5)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능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Paramio 2006, 68; 70).

차베스는 “페미니즘 없이 사회주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으며 2008년 한 연설에서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마초다.”라고 한 바 있다(Pearson 2012). 또한 지속적으로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차베스가 처음부터 여성의 권리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집권 후 구성한 첫 내각에 여성장관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차베스의 직접지시를 통해 CONAMU의 예산을 80%나 삭감시키기도 했다. 집권 당시 차베스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여성들의 전략적 이해보다는 실제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볼리바르 헌법’ 이후 차베스식 포퓰리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방식이 젠더화 되어 있으며(Espina & Rakowski 2010, 180), 그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여성들을 ‘볼리바르 혁명’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차베스의 페미니스트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는 1999년에 이루어진 개헌이다. ‘볼리바르 헌법’이라고 불리는 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함께 명시되었으며, 가정폭력, 주부에 대한 연금제도, 수유보호, 평등기회법 수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첫 발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1990년 입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지만, 차베스에게서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Espina & Rakowski 2010, 180).

차베스 집권직후 내각에서 여성이 소외되었던 것과 여성관련 정부기구의 예산축소는 정치권에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CONG에 포함되었던 대부분의 여성NGO와 독립적인 여성NGO들이 위기를 공감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차베스를 지지하고 좌파 게릴라 활동의 경험이 있었던 페레스 마르시아노(Marelis Pérez Marcano)와 마리아 레온(María León)은 차베스로부터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자문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제헌의회에서 여성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야당여성, 독립적 페미니스트 NGO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회의, 공개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실시했다.

1998년에는 CONG과 다양한 부문의 독립페미니스트들이 공산당 전 지도부였고, 페미니스트 활동가였던 마리아 레온을 CONAMU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차베스는 이를 수락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게릴라활동과 풀뿌리 운동경험이 많으며 차베스의 쿠데타를 지원했던 그를 추천한 것은 여성들의 요구가 제헌의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여성NGO들이 정당과 계급을 넘어선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연대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제헌의회 내에 여성권리를 위한 양원위원회(Comisión Bicameral para los Derechos de la Mujer del Congreso)가 구성되고, 젠더 관련 주제를 다루는 모든 유엔 산하기구들¹⁵⁾이 참여하는 유엔젠더주제그룹(UNTG-G, United Nations Theme Group on Gender)의 지원으로 ‘여성과 입헌과정: 젠더평등과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실시된 ‘제헌과정에서 여성참여 워크숍(Talleres de Participación de la Mujer en el Proceso Constituyente)’은 전국 주요 지역에서 1999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나가스(Monagas)주의 마투린(Maturín)에서 6월 25일과 26일, 아마소나스(Amazonas)주의 푸

15) PNUD, UNICEF, FNUAP, FAO, OPS/OMS, ACNUR, BM 등

에르토 아야쿠초(Puerto Ayacucho)에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솔리아(Zulia)주의 마라카이보(Maracaibo)에서는 7월 15일과 16일에 개최되었다(Castillo and De Salviatierra 2000, 37). 이 지역들은 동, 서, 중부, 남부에서 베네수엘라의 사회문화와 경제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각 지역에서 회합이 이루어진 장소들은 전략적으로 선정되었다. 카라카스, 마투린, 푸에르토 아야쿠초, 마라카이보는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와 출석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 지역에서도 합류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다.¹⁶⁾ 이 워크숍은 1)입법과정, 기본개념, 여성의 참여 2)젠더와 시민권 3)새 헌법과 시민권 그리고 제헌의회에 대한 제언 이라는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여성대표성을 확보한 요구들이 결집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여성들의 제안을 역사적 과정에 포함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Castillo and De Salviatierra 2000, 46).

CONG을 중심으로 결집된 여성단체들은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정리하여 ‘여성 관점에서의 베네수엘라 공화국헌법을 위한 제언(Propuestas para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을 발표하게 되었다(Castañeda and Del Mar Alvarez 2000). 이 제언에는 가장 먼저 성차별적 언어(lenguaje sexista)를 제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총 42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안된 주요내용의 일부를 보면, 우선 성차별적 언어사용 제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할 때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¹⁷⁾ 정부가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원칙을 확립할 것; 평등권과 동등권을 확보

16)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위비(Wihbi), 솔리아 지역의 와유(Wayúu)와 같은 종족에 속한 여성들에서부터 교수, 베네수엘라 공군장교, 교사, 노동자, 의료인, 고문, 지방의원 등 다양한 그룹에 속한 여성들이 참여했다.

17)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 장관은 ‘ministro’이다. 이는 남성장관과 여성장관을 대표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남성장관을 의미하는 ‘ministro’와 여성장관을 의미하는 ‘ministra’를 동시에 병기하는 것이다.

할 것;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 여성전담 정부기구의 강화, 인권으로서의 여성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할 것; 불평등 제거를 위한 전략으로서 적극적 행동(acciones positivas)의 개념을 도입할 것; 1961년 헌법에서 여성에게 인정된 경제, 사회, 정치적 시민권과 기타 권리에 대해 인정할 것; 군사충돌이 없을 것은 물론, 치안 및 가족과 자녀의 삶을 보장할 것, 가정과 사회에서 성, 감정, 신체적 통합성을 지킬 수 있도록 평화를 보장할 것; 원주민 부족의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원주민 인구가 많은 지역의 자문을 구하여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체결된 국제 조약 및 규약들을 헌법에 포함할 것 등이 제헌의회에 제출한 내용의 주요 골자다(Castillo and De Salvatierra 2000, 66-67; Castañeda and Del Mar Alvarez 2000).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9년 말에 완성된 헌법은 2000년 초 국민투표를 거쳐 ‘비(非) 성차별적 대헌장(La Carta Magna y su lenguaje no sexista)’으로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¹⁸⁾은 탄생되었다.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이루어져 온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Rakowski 2003, 399).

2. 차베스의 사회프로그램과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

여성들은 제헌의회 구성과정에서 여성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내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계급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유연하고도 광범위한 연대전략이 주효하다는 것을 학습했다. 볼리바르 헌법이 수립되고 난 후 여성들은 다시 1993년 평등기회법에서 약속된 바대로 CONAMU를 폐지하고 국립여성연구소(INAMujer, Instituto Nacional de la Mujer)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마리아 레온을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INAMujer를 설치했다. 이후 차베스는 여성대중의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내각과 정부요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여성들의 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차베스 정부의 정책

18)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의 원문은 (김병권 외 2007, 415-496)에 완역되어 있다.

내용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포플리즘적 차원에서 실제적 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의료 프로그램의 하나인 바리오 아덴트로(Misión Barrio Adentro)를 비롯한 다양한 미션(Misiones)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이 미션들은 정부가 석유수출을 통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다. 이러한 미션들은 2003년부터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극빈층의 문제를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문맹퇴치, 모든 주민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제공, 예방적 측면에서의 보건문제에 대한 접근, 영양공급,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Castellanos and Canino 2006, 219).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노년기를 포함한 여성들이 공적인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역동적인 활동에 일반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바리오 아덴트로의 경우 여성들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핵심인 미션에서 여성은 자원봉사자 노동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다.

또, 차베스 정부는 2001년 8월 여성빈곤을 가시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젠더관점의 공공정책개발을 위해 여성은행(Banmujer)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 또한 빈곤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차베스는 여러 연설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헌법의 토대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가족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값싼 식료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여성들이 차베스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질서는 젠더평등 없이 수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성을 포함하는 단어를 가진 유일한 미션은 2006년 ‘바리오의 어머니(Misión Madres del Barrio)’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마약사용 감소, 청

소년 여성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방지, 극빈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Baribeau 2006). 이 미션에 소속된 여성들은 양성평등과 여성부(Minmujer,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Mujer y la Igualdad de Género)¹⁹⁾의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의 80%정도를 연금으로 지원 받고 있다(Minmujer 2012).

차베스는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계급과 빈민계급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공동체에서 여성들을 조직화하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대중계급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차베스정부에서 많은 페모크라트를 포함하는 기존의 여성연대와 경쟁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여성권리나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생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여성투쟁사에 대해 알지 못했고, 페미니즘을 반가족적인 것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Rakowski 2003, 400).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INAmujer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실제적 이해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계와 여성NGO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의 여성연구소와 같은 학계에서도 바리오 지역과 미션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Castillo 2010, 필자 인터뷰).

IV. 결론에 대신하여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볼리바르 헌법’이 수립되기 까지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이 실질적 요구와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19) 차베스 정부는 2008년 여성담당장관 사무국(Despacho de la Ministra de Estado para Asuntos de la Mujer)을 설치했다가 2009년 양성평등과 여성을 위한 대중권력부(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Mujer y la Igualdad del Género)로 변경했다.

전략을 구축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은 1940년대에 중간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1950년대에는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Marcos Pérez Jiménez)의 독재반대와 민주화를 위해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후 여성운동은 탈동원화 과정을 거쳐 다시 197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다.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에서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략은 계층과 이데올로기를 넘어 매우 유연하고도 체계적인 연대전략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어느 여성운동세력이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상호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차베스 등장 이전까지 여성운동의 주요 활동은 양성평등을 위한 법 개정과 지역공동체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차베스 등장 이후 여성들은 볼리바르 헌법의 수립뿐만 아니라 혁명의 이행 과정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던 바리오스(Barrios)나 농촌 지역 마을 위원회 혹은 협동조합에서도 여성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공동체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결정과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차베스 정부에 들어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는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에서의 참여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참여의 필요성,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정책결정 과정과 방법, 그리고 리더십 등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0년 7월 총선에서는 9.7%, 2005년 12월 선거에서는 18%, 2010년 9월 선거에서는 17.5%가 여성이었다(<http://www.ipu.org>).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 단위에서 얻은 참여 경험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적 요구와 꾸준히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대한 인식은 현지조사에서 실시했던 학자, 정치인들과의 면담에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차베스 정권시기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베스 정권 정책의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 그리고 여성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범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성에 바탕을 둔 유연한 전략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베네수엘라 여성운동이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 나갈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병권 외(2007),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쓰다-차베스의 상상력, 21세기 혁명의 방식』, 시대의 창.
- 류주형(2006),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운동,” <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1506&page=1&category1=69>
- 모저, 캐롤린(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장미경 외 옮김, 문원출판.
- 베네수엘라 혁명연구모임(2006),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굴레를 벗고 자주의 새 역사를 여는 베네수엘라』, 시대의 창.
- 안태환(2008), 『베네수엘라 혁명은 ‘연대(solidaridad)’의 혁명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순주(2008),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제: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중을 기반으로 한 초 대통령제」, *Oughtopia*, Vol. 23, No. 1, pp. 167-185.
- 임승수(2006a), “베네수엘라 혁명이 걸어온 길,” <http://hb.jinbo.net/view.php?ho=9&cat=international&pg=&no=921>
- _____(2006b), “미제국주의와 맞서는 베네수엘라의 혁명,” <http://hb.jinbo.net/view.php?ho=10&cat=international&pg=&no=1041>
- _____(2006c),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베네수엘라,” <http://hb.jinbo.net/view.php?ho=11&cat=international&pg=&no=1121>
- _____(2006d), “볼리바리안 씨클: 베네수엘라 혁명을 수호하는 민중조직,” <http://>

- hb.jinbo.net/view.php?ho=13&cat=international&pg=&no=1321
- _____(2006e), “베네수엘라 혁명에서 제헌의회 전술의 역할,” <http://hb.jinbo.net/view.php?ho=14&cat=international&pg=&no=1421>
- 전소희 · 정주연(2006), 「베네수엘라 혁명, 여성에게도 혁명인가?」, 페미니즘연구, Vol.6. pp. 209-236.
- 조돈문(2009),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과 체제이행의 정치」, 동향과 전망, 77호, pp. 281-317.
- 홍옥현(2007),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유권자는 왜 좌파 정부를 선택하였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2, pp. 39-81.
- Baribeau, Simone(2006), “Venezuela Announces New Mission: Mothers of the Barrio,” <http://venezuelanalysis.com/news/1672>
- Barreto, Marina(2003), “El Aporte de la Mujer Venezolana en la Construcción de una Nueva Sociedad,” http://www.iidh.ed.cr/comunidades/ombudsnet/docs/docs_ombudsman/BOLIVIA%20SEMINARIO/El%20aporte%20de%20la%20mujer%20venezolana%20en%20la%20construccion%20de%20una%20nueva%20sociedad.htm
- Castañeda, Magally Huggins(2010), “Re-escribiendo la historia: Las Venezolanas y sus luchas por los Derechos Políticos,”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 Vol. 15, No. 34, pp. 163-190.
- Castañeda, Nora y del Mar Alvarez, María(2000), “Proceso constituyente. Propuestas para la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Venezuela desde la mirada de las mujeres,”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 Vol. 5, No. 14, pp. 147-154.
- Castillo, Adicea and De Salvatierra, Isolda H.(2000), “Las Mujeres y el proceso constituyente venezolano de 1999: elementos y propuestas para asegurar la Equidad de género y la democracia en Venezuela,”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 2000, Vol. 5, No. 14, pp. 37-87
- Castillo, Laura Helena(2005), “La venezolana que ha vivido en tres siglos: La prolongada batalla de Josefina Juliac,” <http://enlasdosorillas2.wordpress.com/2005/05/20/la-venezolana-que-ha-vivido-en-tres-siglos/>
- Castillo, Adicea(2010), 필자 인터뷰(2010.01.22.).

Ellner, Steve(2006), “Las estrategias 《desde arriba》 y 《desde abajo》 del movimiento de Hugo Chávez,” *Cuadernos de los Cendes*, Vol. 23, No. 62, pp. 73-93.

Espina, Gioconda and Rakowski, Cathy A.(2002), “Movimiento de mujeres o mujeres en movimiento? El caso de Venezuela,” *Cuadernos del CENDES*, Vol. 49, pp. 31-48.

_____(2006), “Institucionalización de la lucha feminista/femenina en Venezuela: solidaridad y fragmentación, oportunidades y desafíos,” Augusta Lynn Bolles(eds.), *De lo privado a lo público, Siglo XXI*, pp. 310-330.

Eurosur, “Acción Estatal,” <http://www.eurosur.org/FLACSO/mujeres/venezuela/orga-4.htm>

Fernandes, Sujanta(2007), “Barrio Women and Popular Politics in Chavez’s Venezuel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9, No. 3, pp. 97-127.

López Maya, Margarita(2001), “Identidades en movimiento (aspectos del marco de acción colectiva de la protesta popular venezolana en 1999),” *Espacio Abierto*, Vol. 15, No. 1-2, pp. 9-34.

MinMujer(04-07-12), “Ana de Castellano: Con la Revolución aprendí a pensar en colectivo,” <http://www.minmujer.gob.ve/>

Molyneux, Maxine(1985), “Mobilization without Emancipation? Women’s Interests, State and Revolution in Nicaragua,” *Feminist Studies*, Vol. 11, No. 2, pp. 227-235.

Paramio, Ludolfo(2006), “Giro a la Izquierda y regreso del Populismo,” *Nueva Sociedad*, No. 205, pp. 62-74.

Pearson, Tamara(2012), “Chavez’s Inconsistent Feminism,”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6743>

Rakowski, Cathy A.(2003), “Women’s Coalition as a Strategy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Venezuel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16, No. 3, pp. 387-405.

Ramos Rollon, María Luisa(1995), *De las protestas a las propuestas: identidad, acción y relevancia política del movimiento vecinal en Venezuela*, Caracas: Instituto de Estudios de Iberoamérica y Portugal.

Urdaneta, Hender(2008), “El rostro de Venezuela en la Cuarta República,”

<http://www.aporrea.org/ideologia/a62528.html>

Vera, Esperanza(2000), “La Agenda está integrada a un proceso,”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 Vol. 5, No. 14, pp. 17-36.

_____(2010), “Encuentro unitario en tiempos difíciles. Primer seminario para la evaluación de la condición de la mujer en Venezuela,”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 Vol. 15, No. 34, pp. 235-254.

Zaira, Reveron(2002), “Participación y Representación de la Mujer en Instancias de Gobierno y Cuerpos Deliberantes en Venezuela,” *Politeia*, Vol. 1, No. 28, pp. 7-34.

이 순 주

울산대학교
leti.soonjoolee@gmail.com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7일

Politics of Flexibility: Strategies of Venezuelan Women's Movement.

Soon-Joo Lee
University of Ulsan

Lee, Soon-Joo (2012), Politics of Flexibility: Strategies of Venezuelan Women's Movement.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historically the strategies of the movement of Venezuelan women to obtain the demands of gender equity. The gender politics in Venezuela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untries as Cuba, Nicaragua or China where they have experienced the revolution and have established state institutions focused on women to include women's interests and demands under the wide project for the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se countries the women's demands were considered to be secondary topics comparing with 'more important' topics as development and national integration. Venezuela continues being a pole of attention for the appearance of the president Hugo Chávez, for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and for the banner of the socialism of the 21st century. This new constitution was considered to be very innovative using non-sexist language and recognizing the economic value of domestic labor from the view of women. But these are results of the effort of Venezuelan women's movement. And those are acquired by the strategies of coalition of flexibility based on the rationality learned by the experiments from the history of Venezuelan women's movement.

Key words feminist, gender politics, coalition, the Bolivarian Constitution, civil society